

<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갈라디아서 6:7-9 / 새찬송가 357(통일 397)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 인생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인생의 생로병사가 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다 필연이지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 인생은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될까요

언뜻 인생은 예상하고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으나 인생은 하나님의 법칙 즉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갈6:7).

3.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인생은 육체를 위해 심는 인생과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으로 크게 구분 됩니다(갈6:8)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목표로 삼아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다가 결국 썩어질 것을 얻게 되는데 바로 마음이 둔해져 홀연히 사망의 심연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눅 21:34).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삶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인생은 그때그때의 욕구와 본능에 충실하기에 참고 인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은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뤄야 하기에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욥의 인생은 성령을 위해 심은 인생이었습니다(욥3:20-26).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참고 인내했습니다(욥23:10).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이는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참고 기다리게 하는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행1:8). 이런 권능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죽음의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교회를 지키며 인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고린도후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고후11:23-30).

그들의 수고한 바는 결국 결실을 맺어 사도행전의 때로부터 약300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전 유럽이 복음화 되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갈6:9).

5. 성령을 위해 심고 때가 되면 이루는 삶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곧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인내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요일5:14).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주님의 뜻이 이뤄지고, 따라서 나는 저주의 문제로 인한 시간낭비나 염려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일하고 주님이 우리 일을 도우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종교입니다(빌4:6,7).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주어질 것이 확실하고 이런 확신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빌4:6,7).

<적용&실천>

나의 삶이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조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